

베이핑 지하당 시기 장지락 문학의 주제적 연구

손만녕* · 최창륜**

〈차 례〉

1. 들어가며
2. 반제 사상과 국제 연대
3. 사회 불평등과 '혁명'
4. 국민성 비판과 문예 및 종교
5. 실존적 고독과 자의식
6. 나가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장지락(1905~1938)이 베이핑(北平)에서 중국공산당 지하당 공작을 하던 시기인 1929~1930년에 발표한 중국어 저술 중 소설, 희곡, 시, 잡문 등 문학 창작에 주목한 주제적 연구이다. '엔광(炎光)'과 '리엔광(黎炎光)'이라는 필명으로 중국의 유명한 근대매체인 『대공보(大公報)』, 『신동방(新東方)』, 『삼민반월간(三民半月刊)』에 발표한 이 글들은 첫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약소민족의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였으며, 둘째, 하층민의 빈곤함을 묘사하면서 중국 혁명의 불철저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수상록식의 잡문들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 결여와 개인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중국 국민성과 전통 관습, 그리고 종교의 위해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문예의 사회적 기능을 사유했으며, 넷째, 일부 잡문과 시작품들을 통해 망국민이자 실존적 개인으로서의 고독과 미망, 그리고 자의식을 드러냈다. 이 시기 장지락의 문학 창작은 그의 자서전인 『아리랑』에서의 서술 및 당대의 중국 현실과 상호텍스트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직업 혁명가이자 휴머니스트이며 실존적 개인으로서 그의 다양한 모습과 내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제어] 장지락, 김산, 엔광, 중국어 저술, 주제적 연구

* 제1저자, 남경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남경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1. 서론

님 웨일즈가 펴낸 『아리랑』¹⁾을 통해 김산으로 많이 알려진 장지락(1905~1938)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간 적지 않은 중국어 저술을 남겼다. 이미 손만녕과 최창륵에 의해 상세히 고증되다시피 장지락은 베이핑에서 중국공산당 지하당 공작을 하던 1929~1930년 사이 옌광(炎光)과 리옌광(黎炎光)을 필명으로 많은 중국어 저술을 남겼는바, 소설 2편, 희극 1편과 시 6수, 잡문²⁾ 6편, 그리고 다수의 비평과 1권의 평론집을 볼 수 있다.³⁾ 이에 본고는 이 시기 장지락의 중국어 저술 중, 비평과 평론집을 제외한 문학 작품들에 대한 소개와 주제적 연구를 목표로 한다.

그간의 선행 연구는 주로 장지락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복원과 고찰에 치중했으며, 그의 문학 창작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미즈노 나오키는 장지락의 중국어 소설 「기묘한 무기」를 처음으로 발굴하고, 비록 이 작품이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되었으나 역사적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⁴⁾ 박재우와 김영명은 시 「황푸강아」는 기독교적인 구원 열망을, 소설 「기묘한 무기」는 의열투쟁에 대한 찬미를, 시 「동교장의 휴머니티」와 「한하이(韓海) 동지를 추모하며」는 톨스토이식 휴머니즘을, 「동지여 싸우자」는 국제공산주의 전사의 투지를 보여준다고 보았다.⁵⁾ 그리고 상기 손만녕과 최창륵의 논문 「장지락의 중국어 창작과 북방 좌익문화운동(1929-1930)」에서는 베이핑

1) Nym Wales, Kim San, *Song of Ariran: The Life Story of a Korea Rebel*, New York: John Day, 1941.

2) 잡문은 중국 현대문학에서 나타난 독특한 문학 장르로서 수필과 논문 사이에 자리한 독립적인 문체이다. 흔히 글이 짧으나 소재의 폭이 넓고, 날카롭고 논리적인 설명과 생동감 있는 문학적 표현, 특히는 작은 주제를 통해 큰 문제를 논의하며,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적절히 결합하며, 진지함과 유머를 적절히 섞는 등 특징을 지닌다. 아래 각주의 논문에서는 해당 작품들을 수필로 규정했으나, 장르적으로 잡문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여 수정하는 바이다.

3) 손만녕·최창륵, 「장지락의 중국어 창작과 북방 좌익문화운동(1929-1930)」, 『상허학보』 69, 상허학회, 2023, 369~410쪽.

4) 미즈노 나오키, 편집부 역, 「김산의 작품과 생애 - 조선의 해방을 향한 정열」, 『다리』 1, 1990, 358~365쪽.

5) 박재우·김영명, 「金山의 작품과 그 사상의식 변주 고찰」, 『중국문학』 78, 한국중국어문화학회, 2014, 204~235쪽.

〈표1〉 베이핑 지하당 시기 장지락의 문학 작품

번호	필명	발표일	간행물 및 권호	장르	제목
1	炎光	1929. 10. 24	大公報, 15면	소설	가난한 학생의 경제 정책(窮學生的經濟政策)
2	炎光	1930. 4. 1	新東方 1(4)		기묘한 무기(奇怪的武器)
3	黎炎光	1930. 6. 15	三民半月刊 4(8)	희곡	혁명 동맹(革命同盟)
4	炎光	1929. 12. 16	大公報, 15면	시	인력거꾼과 낙타(車夫與駱駝)
5	炎光	1930. 10. 20	大公報, 9면		핏자국 앞에서 쓰다(寫在血跡前面)
6	炎光	1930. 10. 23	大公報, 9면		통음(痛飲)
7	炎光	1930. 11. 7	大公報, 9면		고요한 밤(靜夜)
8	炎光	1930. 11. 8	大公報, 9면		외기러기(孤雁)
9	炎光	1930. 12. 24	大公報, 9면		하늘의 품속에서 자고 싶어라(我要睡在天之懷里)
10	炎光	1929. 10. 17	大公報, 15면	잡문	허튼소리(胡謔)
11	炎光	1929. 11. 17	大公報, 15면		잡담(雜拌)
12	炎光	1929. 11. 30	大公報, 15면		수필(隨筆)
13	炎光	1929. 12. 19	大公報, 15면		신아언(新雅言)
14	炎光	1930. 1. 12	大公報, 15면		삶의 잡꼬대(生之囁語)
15	炎光	1930. 10. 22	大公報, 9면		대소변을 화두로(從便溺說起)

지하당 시기 장지락의 중국어 저술을 새롭게 발굴하였으나, 지면 관계상 해당 작품들의 전체적인 내용과 특성을 충분히 소개하거나 분석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베이핑 지하당 시기 장지락의 중국어 저술들은 그의 자서전인 『아리랑』과도 상당한 부분 상호텍스트성을 보이는바 이에 대한 주제적 연구는 그의 문학 창작과 사상에 대한 복원 작업이자, 혁명가이자 망명자였던 근대 동아시아 한 개인의 사회 인식과 내면 정감을 살피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는 일제 강점기 중국으로 망명 또는 유학한 근대 한국인들의 중국어 저술의 이면을 살피고 근대 한중 문화 관계사를 새롭게 규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기 장지락의 문학 작품은 반제 및 국제적 연대 사상, 사회 비판과 변혁 의식, 중국 국민성 비판에 기반한 문예와 종교에 대한 사유, 그리고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고독과 자의식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반제 사상과 국제적 연대

<표1>에서 보다시피 지금까지 찾아볼 수 있는 장지락의 중국어 저술은 1929년 10월부터이며, 그는 어느 정도 문필 훈련이 있고 나서, 1930년 4월에 소설 「기묘한 무기」를, 6월에 회곡 「혁명 동맹」을 발표한다. 이 두 작품은 발표 시기가 비슷하며, 모두 제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약소민족들의 연대 필요성을 역설한 작품이다. 비록 그중 「혁명 동맹」은 줄거리가 소략하고 내용이 단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장문의 이 두 작품은 그 규모나 창작 기교 등에 있어서 모두 장지락의 가장 본격적인 문학 창작이라 볼 수 있으며, 망명 혁명가로서 그의 계급적 입장과 사상적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신동방』⁶⁾에 발표한 소설 「기묘한 무기」는 1922년 3월 28일 상하이에서 오성륜이 일본 육군 대신 다나카 기이치를 암살한 후 탈옥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⁷⁾ 소설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1923년으로 변경했으나, 이야기의 전개가 실제 사건 및 『아리랑』에서 언급된 해당 사건에 관한 서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군, 김익상, 오성륜 세 명의 한국 청년이 상하이에 도착한 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다른 한국 청년들과 함께 의열단을 결성하고 일본 육군 대신 다나카 기이치 암살을 수행하는 과정과 암살 실패 후 오성륜이 일본 영사관에 구금되었다가 탈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옥에서 오성륜은 무정부주의자인 일본인 죄수 가토와 그의 매부, 사기죄로 체포된 목수와 같은 방에 갇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들에게 적대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친밀해진다. 어느 날, 창밖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통해 가토의 여동생의 존재를 알게 된 오성륜은

6) 『신동방』은 동양 혁명을 취지로, 중국, 인도, 조선 등 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을 다룬 학술 월간지로서 1930년 1월 베이핑에서 창간, 신아주서국(新亞洲書局) 동방문제연구회 주비회(籌備會)에서 편집 출간하였으며 1932년 1월 정간되었다. 주필은 1926년 모스크바 중산대학에서 유학 후 귀국하여 북신서국(北新書局)에서 편집으로 일하던 류쓰마오(劉思慕, 필명 君山)였으며, 발행량이 4,000 여부에 달하였다. 沈文冲, 『北平新亞洲書局刊行的『新東方』』, 『民國書刊鑒藏錄』,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2007, 26~29쪽.

7) 「吳相崙은 破獄逃走」, 『동아일보』, 1922.5.6, 3쪽.

그녀가 감방 창문을 통해 몰래 넘겨준 작은 칼을 이용해 가토와 함께 감옥에서 탈출한다. 오성륜은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 있는 조선인 거주지로 잠입 후 비록 일본 영사관 경찰들에게 포위당하나 무사히 탈출하여 독일을 거쳐 모스크바로 간다. 이 소설은 인물의 심리 묘사에 중점을 두고, 특히 오성륜의 심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오성륜과 그의 동료들은 비록 암살 사건 후 바로 체포되나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다나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고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한다. 또한 소설은 오성륜이 일본 영사관 감옥에서 일본인에 대한 증오에서 벗어나 일본 하층 민중과의 연대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는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억압받는 계급과 민족이 연합하여 제국주의에 저항해야 한다는 주제를 강조한다.

또한 이 소설은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통해 이야기를 풍부하게 전개한다. 서두에서 저자는 일제를 ‘독룡(毒龍)’에 비유하여 그 잔인성을 형상화한다. 소설은 ‘독룡’이 영국에서 처음 탄생하여,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한 뒤, 일본에서 다시 임신하고 번식하였다는 표현을 통해 제국주의의 세계적 확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제국주의를 ‘세계의 대왕’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의 오만함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비판한다. 그리고 ‘독룡’이 대만과 조선을 삼키고 이제 중국을 노리지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탐욕스럽게 먹어대는데, 과연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병은 많고 게다가 매우 위험하다. 다음 사건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겪고 있는 병 중 하나이다.”라며 한국 청년들의 다나카 기이치 암살 시도를 예고한다.⁸⁾

장지락에 따르면 그는 16세인 상하이 시절 이미 30세 좌우의 오성륜을 만나 사귀었으며, “광둥에서 몇 년 지낸 후에 그는 내 생애를 통틀어 가장 친한 두 명의 친구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⁹⁾ 또한 자서전에서도 오성륜의 다나카 기이치 암살 행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¹⁰⁾ 소설의 기본

8) 炎光, 『寄怪的武器』, 『新東方』 제1권 제4기, 1930.4.1, 163~164쪽.

9) 님 웨일즈·김산, 송영인 역, 『아리랑』, 동녘, 2005, 167~168쪽.

내용은 오성륜에게서 전해 들은 기억에 근거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심리 묘사나 서사 기법 등을 통해 장지락 자신의 현실 인식과 사상 역시 충분히 엿볼 수가 있다. 김영명·박재우는 장지락이 무정부주의적 성향의 민족주의자에서 국제공산주의자로 사상적 전환을 겪는 과정에 주목하여, 이 작품은 단순히 사건의 재현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민족주의적 감정, 그리고 무정부주의적 항일 투쟁에 대한 찬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¹¹⁾ 그러나 이 작품은 장지락이 이미 베이핑 지하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던 시기 창작한 작품으로서 반제 담론을 국제적 연대의 차원에서 탐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소설은 가토 등 일본 내에서 억압받는 하층 민중에 주목하면서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 소설에서 오성륜은 “만약 나의 조국이 매우 강성해서 일본인의 괴롭힘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 이런 격렬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고백한다.¹²⁾ 또한 구금된 한인 지사에 비추어 안남 병사는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는 데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앞잡이가 되고 만 자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바¹³⁾ 이 역시 반제운동을 위한 식민지인의 각성과 국제적 연대 의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장지락은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인을 나누어 보았으며, 일본의 하층 민중은 일어나 저항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시기 그는 반제운동과 계급해방운동을 동시적 과제로 보았다. 최룡수가 발견한 장지락이 1930년 12월 베이핑에서 체포되었을 때 작성한 「자술서」에는 “현재 조선 혁명 운동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농공해방 운동이다. 이 두 가지 운동은 1928년 이후 서로 화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혁명 운동의 큰 손실이다.”¹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이는 조선의

10) 님 웨일즈·김산, 송영인 역, 『아리랑』, 동녘, 2005, 171~174쪽.

11) 박재우·김영명, 「金山의 작품과 그 사상의식 변주 고찰」, 『중국문학』 78, 한국중국어문화회, 2014, 220~223쪽.

12) 炎光, 「寄怪的武器」, 『新東方』 제1권 제4기, 1930.4.1, 177쪽. 『아리랑』에도 “조국이 강성했다면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님 웨일즈·김산, 송영인 역, 『아리랑』, 동녘, 2005, 73쪽.

13) 炎光, 「寄怪的武器」, 『新東方』 제1권 제4기, 1930.4.1, 174쪽.

경우만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의 피압박 계급이 일떠서 지배계급에 항거하고 상호 연대해야 비로소 인류의 해방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삼민반월간』¹⁵⁾에 발표한 「혁명 동맹」은 여러 약소민족의 청년들이 제국주의에 맞서 연대와 투쟁을 결의하는 이야기를 다룬 단막극이다. 극은 중국 청년과 그의 연인인 만리(曼麗), 조선 청년과 그의 하인인 금성, 그리고 인도와 안남의 청년들이 여행 도중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서 시작된다. 각 민족의 청년들은 제국주의의 압박을 피해 탈출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혁명적 신념을 나누고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이들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혁명 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하며 극은 막을 내린다.

이 극은 작중 인물의 대화를 통해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극에서는 약소민족을 차례로 삼키려 드는 제국주의의 잔혹성과 탐욕을 폭로함으로써 연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중국 청년, 한국 청년, 안남 청년, 그리고 인도 청년은 모두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각자 자기 나라에서 겪은 고통을 고발한다. 중국 청년은 제국주의자들이 대포와 기관총을 동원해 식민지를 침략하고 자국 내부에서는 또 군벌들이 민중을 학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 청년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하며, 안남 청년은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잔인하게 빼앗고, 그로 인해 오랜 역사와 문화가 짓밟혔다고 주장한다. 인도 청년은 영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자유를 상실하고 국가가 파괴되는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한다. 이들은 제국

14) 최용수, 「김산(장지락) 연보」, 『황해문화』 49, 새얼문화재단, 2005, 345쪽.

15) 1928년 9월 베이핑 삼민학사(三民學社)에서 발간한 종합지로서 1932년 1월 중단되었다. 『三民半月刊發刊辭』, 劉宏權·劉洪澤 主編, 『中國百年期刊發刊詞600編(上)』,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6, 311쪽. 삼민학사는 산시성(山西省)을 근거지로 하는 중국 서북 지역의 군벌 엔시산(閻錫山)이 1928년 6월 4일 국민정부에 의해 베이징·톈진 위수(衛戍) 총사령으로 임명되어 베이징에 진입하여 지방 대권을 장악한 뒤, 심복인 광원(方聞) 등에게 명하여 조직한 문화단체이다. 「方聞」, 侯文正 主編, 『五臺山志』,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2003, 569쪽. 이외 『삼민반월간』은 1930년 7월 난징(南京)특별시 우전검사소(郵電檢査所)에 의해 ‘반동 간행물’로 지적되어 몰수된 바 있다. 郭帥, 「20世紀30年代國民黨省級黨部宣傳部文藝審查基本制度-以南京特別市黨部宣傳部爲案例」, 李怡·毛迅 主編, 『現代中國文化與文學 32』, 成都: 巴蜀書社, 2020, 252쪽.

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공통된 결의를 보여주며, 제국주의가 여러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여러 민족이 겪는 고통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은 세계적 문제이며 억압받는 여러 민족의 연대가 중요함을 명확히 한다. 그 예로 중국 여성 만리가 여성에 대한 억압을 새롭게 인식하는 장면을 보도록 한다.

저는 여자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소멸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인 줄 알았어요. 여자 스스로는 아무리 어찌하여도 남자처럼 혁명 사업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았지요. 게다가 세계에서 고통받는 여성은 오로지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 남자들이 혁명에서 성공하면 당연히 우리도 좋아 지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들이 방금 하는 말들을 듣고 세계의 피압박 민족은 한 나라에만 그치지 않으며, 더욱이나 우리 여자들의 고통은 '세계화'적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다시는 교태를 부리는 비열함과 스스로 남의 노리개가 되는 짓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모든 여자와 전체 인류를 위해 행복을 도모하는 용감한 근위병이 되겠어요. 이후로는 당신(중국 청년을 가리키며)을, 단지 내가 사랑하는 동지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동지일 때는 무엇이든 협력할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더는 동지가 아니거나 오히려 반혁명이 된다면 저로서는 적을 대하는 수단으로 당신을 대할 수밖에요. (웃음)¹⁶⁾.

보다시피 중국만이 아닌 여러 약소민족의 모든 여성이 고통받고 있다는 국제적 인식은 방관자에서 행동 주체로의 전환을 가져오며, 애인에서 동지로서의 자각을 낳는다.

요컨대 「기묘한 무기」와 「혁명 동맹」은 모두 반제 사상과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두 작품 모두 인물들의 각성과 성장이 두드러진다. 「기묘한 무기」에서는 오성륜이 단순한 암살 활동에서 더 넓은 세계적 무대에서의 투쟁으로 나가는 성장을 보이며, 「혁명 동맹」에서는 여성의 자각

16) 黎炎光, 「革命同盟」, 『三民半月刊』 제4권 제8기, 1930.6.15, 7쪽.

을 포함한 약소민족의 연대라는 폭넓은 시야에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중국에서 약소민족 간의 광범위한 연대 의식은 1937년 중일 전면전의 발발 후 보다 적극적으로 선전되기는 하나, 이는 공산주의 사상의 기반을 이루는 무산계급의 국제적 연대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중국의 초기 공산주의 운동 이론가인 리다자오(李大釗, 1889~1927)는 일찍부터 자본주의에 억압받는 집단은 계급적으로는 무산계급이고, 국제적으로는 약소민족이라고 지적하면서 제국주의 국가의 노동자를 포함한 전 세계의 억압받는 민족과 계급의 대연합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¹⁷⁾ 또한 1923년 중국공산당 제3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는 국민혁명을 통해 세계 혁명을 촉진하고, 세계의 억압받는 민족과 계급을 해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¹⁸⁾ 1926년에서 1927년 사이, 국민당 좌파 지도자이자 국민혁명군 정치부 주임이었던 덩옌다(鄧演達) 역시 중국 혁명이 억압받는 민족과 계급의 해방 투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역으로 세계의 억압받는 민족과 계급의 혁명 운동이 중국 혁명을 지지하고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¹⁹⁾ 한편, 장지락은 1922년에서 1925년까지 베이징 세화(協和)의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초창기의 중국인 공산주의자도 몇 명 만났다. 그중에는 스춘통(施存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 공산청년동맹 창립자의 한 사람이며 1920년에 이 동맹 초대 서기가 되었다. 1923년에 중국공산당 창립자의 한 사람인 리다자오를 만났다. 그는 우리 잡지 <혁명>에 정기적으로 기고하였으며 이따금씩 충고와 비판을 해주었다. 그 후 취추바이(瞿秋白)²⁰⁾도 알게 되었다.”²¹⁾라고 한다. 요컨대 장지락은 중국 초기 공산주의 운동가들의 사상적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을 알 수 있

17) 郭聰·李楠, 「家國情懷與人類關懷的統一: 李大釗民族主義與國際主義思想的歷史考察」, 『社會科學動態』7, 湖北省社會科學院, 2024, 11쪽.

18) 周雲·王稼裕, 「中共三大與海陸豐農民運動」, 『江蘇第二師範學院學報』40(1), 江蘇第二師範學院, 2024, 105쪽.

19) 王慶全, 「左翼知識分子立場與‘革命文學’論爭研究」,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66쪽.

20) 취추바이(1899~1935), 중국공산당 초기 이론가이자 지도자로서, 1927년 7월 중국공산당 임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중앙 총책임자로 선출된 바 있다. 「瞿秋白」, 西北師範學院政治系中共黨史教研室·資料室, 『中國共產黨英烈小傳 第1集』,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80, 259~269쪽.

21) 님 웨일즈·김산, 송영인 역, 『아리랑』, 동녘, 2005, 201쪽.

다. 물론 망국민으로서 중국 혁명에 힘입어 조국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장지락으로서는 약소민족의 국제적 연대가 더욱 절박했음도 짐작할 수 있다.

3. 사회 불평등과 ‘혁명’

장지락은 1929년 10월을 시작으로 『대공보』²²⁾에 콩트, 시, 잡문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혁명을 호소한다. 10월 24일에 발표한 짧은 소설인 「가난한 학생들의 경제 정책」과 12월 16일에 발표한 시 「인력거꾼과 낙타」는 모두 사회 하층민의 가난한 생활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사회 구조의 불공정성을 드러내며, 가장 먼저 10월 17일에 발표한 잡문 「허튼소리」에서는 사회의 불평등을 제시하면서 중국 혁명의 불철저성을 비판하였다. 다시 1년 뒤인 1930년 10월 20일에 발표한 시 「핏자국 앞에서 쓰다」와 1930년 10월 22일에 발표한 잡문 「대소변을 화두로」는 진정한 혁명의 불가피성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였다. 이 글들은 그가 직접 체험한 중국에서의 생존 및 사회적·혁명적 경험에 기반한 것들로서 중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새 사회에 대한 상상을 자극하며, 사회 변혁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가난한 학생들의 경제 정책」은 가난한 학생의 생존 전략을 유머러스하게 묘사한 짧은 소설로서 장지락이 실제 체험하였을 빈곤을 다루고 있다. 대학생 L군은 대학 입학 후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마르크스 경제 철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신경제정책’²³⁾을 고안하게 된다. 첫 번째로, 그는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22) 『대공보』는 1902년 6월 17일, 텐진(天津)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창간되었으며, 중국 근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형 종합 신문 중 하나로 평가된다. 「大公報」, 唐力行 編, 『江南文化百科全書』, 上海: 光啓書局, 2021, 347쪽.

23) 소설의 ‘신경제정책’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1921년 레닌이 제시한 소련의 ‘신경제정책(NEP)’과 표면적인 유사성은 있으나 그 핵심 내용은 관련이 없다. 소련에서는 10월 혁명과 내전 후 경제를 회복하고자 현물세를 포함하여 일정 부분 시장 경제를 허용한 바 있다. (王永志, 「列寧的新經濟政策再思考」, 『學習與探索』 6, 黑龍江省社會科學院, 2002, 73~76쪽)

차를 마시는 데 열중하며, 허기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두 번째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는 작은 식당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이러한 ‘소비’ 측면의 정책은 그의 배고픔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설의 후반부에서는 L군의 ‘생산’ 측면의 정책이 소개된다. 첫 번째로, 그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원고를 팔아 수입을 얻는다. 두 번째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책들을 팔아 돈을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옷을 전당포에 맡겨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 L군이 고안한 이 신경제정책은 그의 현실적인 고민과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마르크스 경제 철학의 적용을 통해 가난한 학생의 처절한 현실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1921~1925년 베이징에서 세허의학원을 다니며 그가 실제로 체험하였을 당대의 빈곤에 대한 꺾어진 묘사이기도 함을 짐작하게 한다.

그는 시 작품을 통해서도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폭로하고 하층민의 빈궁을 표현하였다.

시단 파이러우(西單牌樓)²⁴⁾의 한 모퉁이,
뜨거운 열기를 뿜으며
녹두색 저고리와 구멍 난 반바지를 입은
인력거꾼이 뛰어나오네.
이를 악물고 두 손으로 인력거를 끌고서
달리는 그는 굶주린 아내가 떠올라
한시 급히 손님을 차에서 부리고 싶네.

[중략]

그러나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참조.) 이와 달리 L군의 ‘신경제정책’은 개인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수익을 자구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24) 시단은 베이징의 저명한 상가(商街)이다.

낙타 선생의 주둥이가 바로 코 앞에 있네.
 “이놈 짐승아! 너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
 나를 짓밟으려는 것이냐?”
 기분이 언짢아 낙타 물이꾼에게 화라도 내듯이
 한마디 욕을 하고서 그 자리에 멈춰 섰네.

“멍청한 놈! 누가 너더러 그렇게 뛰라더냐,
 천생 노예처럼 천한 놈아
 낙타와 다름 바가 또 무엇이더냐?”
 낙타 물이꾼은 이렇게 되묻는데
 인력거에 탄 돼지처럼 뚱뚱한 부인은 어서 가자고 재촉하네.
 굶주린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중얼중얼하며 그는 계속해 가네.

- 「인력거꾼과 낙타」 부분

보다시피 「인력거꾼과 낙타」는 하층민의 비참한 삶과 사회적 불평등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단형(短型) 서사시다. 인력거꾼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내가 걱정되어 서둘러 손님을 목적지에 실어다 주려고 하나 부주의로 하마터면 낙타와 부딪친다. 그는 낙타를 ‘짐승’이라 욕하나 오히려 낙타 물이꾼에게 천생 노예라고 조롱당하며, 인력거에 탄 부잣집 여인의 재촉으로 싸움 한번 시원히 하지 못하고 길을 재촉하게 된다. 이처럼 시는 의인화와 대조 기법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하층민의 무력감을 표현한다. 장지락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하층 민중에 대한 깊은 연민과 휴머니즘적 정신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베이핑 변화가인 시단을 구체적인 장소로 제시하고 있어, 이는 중국 당대의 현실을 묘사한 시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하층민의 빈곤한 생활에 대한 제시는 곧 중국 혁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일찍 1911년 신해(辛亥)혁명을 통해 봉건 국가인 청을 뒤엎고 공화제인 중화민국을 건립하나 곧 군벌 정권인 북양(北洋)

정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그 후 1924~1927년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제휴로 북양 정부를 토벌하는 북벌 전쟁 즉 대혁명이 진행되나 북벌 전쟁이 승리를 앞둔 1927년 국공(國共) 분열 즉 국민당의 공산당 진압으로 국민혁명으로 불리는 대혁명은 파산되고 만다. 이에 중국공산당은 무장봉기를 통한 홍군(紅軍)과 소비에트 건립 등 어려운 길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장지락은 잡문「허튼소리」를 통해 표면적 변화에 머무르고 만 중국 혁명의 불철저성을 비판하면서 기존의 혁명이 계급 격차와 사회 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국민당 통치하의 권력의 부패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혁명의 본질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다. 글의 서두에서 그는 사회 권력 구조에 대해 “여자, 돈, 세력이 맺은 삼각 동맹”이라고 풍자한다. 장지락은 “정부가 정말로 인민의 공복(公仆)이라면, 왜 일반 백성들이 관리들을 ‘나으리(老爺)’라고 부르는가?”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겉으로만 인민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국민당 정권의 양면성을 드러내며, 권력이 여전히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폭로한다. 계속하여 그는 “혁명은 철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어느 정도로 철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는 국민당에 의한 중국 혁명이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단순히 표면적인 변화에 그쳤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지락은 과거 시대에 여성이 남성의 부속품에 불과했음을 비판하면서 혁명 후에도 여전히 고위 관리의 아내가 ‘마님(太太)’이나 ‘부인’으로 불리는 중국의 현실을 꼬집는다. 이는 혁명이 성차별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장지락은 혁명을 외치는 위선자들의 불순한 동기를 비판한다. “부패한 관리가 혁명의 대세에 밀려 결국 혁명에 동참한다면, 그런 혁명에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는 ‘혁명가’들의 동기가 진정한 변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사익을 위한 것인지를 묻는다. 이는 국민당이 이끈 과거의 ‘혁명’이 특권 계층이 자기 이익을 위해 혁명을 이용한 데 불과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하여 장지락은 “아버지가 벼슬을 하면 그 아들은 밖에서 언제나 이익을 본다. 이것이 중국만의 특수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묻는다. 이처럼 그는 예

리한 질문들을 통해 혁명은 단순한 정치 제도의 변화 이상으로, 사회 일반적 가치관과 관습에 대한 심층적인 반성을 전제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1930년 10월에 이르러서도 그는 사회 불평등 현상과 관련하여 혁명의 불철저성을 지적하는 한편, 진정한 혁명을 호소하였다. 특히 시「핏자국 앞에서 쓰다」는 혁명 의지를 강렬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시 전문을 보도록 한다.

나는 상아 궁전의 왕손이 아니니
고귀하고 고결한 것들을 쓸 수 없다.
또한 십자로의 부랑자도 아니므로
어제는 혁명을 외치고, 오늘은 잠잠한 짓도 하지 않는다.
항상 수평선 위에 서서, 불공정을 질타하고 약자의 편에 서고자 할 뿐이다.

지구가 흔들려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화산이 폭발해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 이제 여러 계급으로 나뉜 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 것이니,
그 후에는 죽어도 전혀 원망치 않으리!

적의 증오와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동지들의 배신과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불평등한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기와 거짓을 없애며,
자유롭고 평등하며, 사랑과 화목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자 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앞에는 여전히 붉은 피의 흔적이 있다.
그들은 모두 압박에 저항하며 목숨을 잃었다.
나는 피의 흔적을 따라 빠르게 전진할 것이다.

장지락은 ‘상아궁전(象牙宮殿)의 왕손’이 아닌, 즉 특권층과 거리가 먼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십자로에서 어제는 혁명을 외치고 오늘은 잠잠한” 기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지구가 흔들려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화산이 폭발해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며 불의를 향해 끊임없이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다. 1925년, 루쉰이 구리야가와 하쿠손(廚川白村)의 『상아탑을 나와서』를 번역 출간하고²⁵⁾, 이어서 같은 작가의 『십자로로 나가서』가 번역되면서²⁶⁾ 중국 문예계에서는 흔히 지식인들이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이나 문예에 몰두하는 경우를 ‘상아탑’으로, 이와 대조적으로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십자로’로 표현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장지락이 이 상반된 두 개념을 통해 단지 혁명을 추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그는 “나 이제 이 여러 계급으로 나뉜 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 것이니, 그 후에는 죽어도 전혀 원망치 않으리!”라는 철저하며 지속적인 혁명여로의 의지를 보인다. “피의 흔적을 따라 빠르게 전진할 것이다.”에서 보 다시피 그는 유혈을 마다하지 않는 각오를 보인다.

그리고 이틀 뒤 『대공보』에 발표된 잡문 「대소변을 화두로」에서 장지락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사회 내부의 불평등을 조명한다. 인간은 모두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만이 양질의 음식과 특혜를 누릴 수 있다. 그는 인간의 기본적 생리 욕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적 불평등이 얼마나 비정한지를 드러내면서 “지금의 사회는 소수의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일체를 지배하는 사회”로서 소수의 특권층은 인의도덕(仁義道德)의 가면을 쓴 채 민중을 더욱 착취할 뿐이라고 폭로한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민중이 깨어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기존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혁명을 왜곡하고 훼손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비판을 제시한다.

25) 廚川白川, 魯迅 역, 『出了象牙之塔』, 北京: 未名社, 1925.12.

26) 廚川白川, 錄蕉·大杰 역, 『走向十字街頭』, 上海: 啓智書局, 1928.8.

요컨대 장지락은 자신이 실제 체험한 빈곤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인 의식주에서부터 부자들과 대조되는 사회 하층민들의 곤궁하고 비열한 삶을 드러내면서, 철저한 사회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중국의 현실 문제에 주목하여 신해(辛亥)혁명과 대혁명의 불철저성으로 혁명이 한낱 개인적 영달이나 권력의 수단으로 타락했음을 비판하였다. 그의 작품 중 상당 부분은 중국적 맥락에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피력함으로써 당대의 중국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자 하였으며 실제적인 사회적 효용성을 목표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국민성 비판과 문예 및 종교

1929년 11~12월에 장지락은 『대공보』에 연달아 3편의 잡문을 발표하는데 이 글들은 모두 문예와 종교의 기능에 대해 단편적으로 사유한 수상록식 글들이다.

먼저, 장지락은 「잡담」에서 중국의 전통 문인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문예관을 드러낸다. 그는 글의 서두에서 “문인은 가장 따분한 존재다. 그는 종종 방 안에서 공중누각을 쌓으며, 이를 허황하게 그려내 사람들이 오리무중에 빠지게 하나 그것으로 명성을 얻고 출판료를 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창작 경향을 비판하였다. 이어서 『논어』에서 자장이 공자에게 관직과 봉록을 구할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청하는 ‘자장학간록(子張學干祿)’을 인용하여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학문을 출세의 수단으로 여겨 왔다고 비판한다. 그는 천두슈(陳獨秀)가 중국인을 ‘불결여시(不潔如豕, 돼지와도 같이 청결치 못하다)’와 ‘노대병부(老大病夫, 병든 늙은이)’라고 비판했으나, 그보다는 ‘동홍선생(冬烘先生)²⁷⁾’, ‘문약 서생(文弱書生)’, ‘우부 수재(迂腐秀才, 진부한 선비)’가 더 적합하다며 “중국인은 허영심이 강하다. 특

27) ‘동홍선생’은 세상 물정에 어둡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지식한 학자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히 문인의 허영심은 더욱 강하다.”라고 신랄히 풍자한다. 또한, “독서는 본래 특정 직업이 아니며, 각 개인의 직업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독서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무형의 소비가 증가한다는 증거일 터이니, 국가와 사회가 독서인으로부터 얻는 이익이란 의문이 되고 말 것이다.”라면서 글 읽기가 출세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장지락은 “중국 문인들이 향락을 즐기는 도피처는 미인, 술, 명상, 비분(悲憤)일 따름이다.”라면서 문인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대해 비판하였다. 한편, 그는 문예가 현실과 동떨어진 공중누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정한 문예는 진(眞), 선(善), 미(美)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사회에 광(光), 열(熱), 역(力)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다시피 장지락은 전통적인 중국 문인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문예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독특한 논리성을 보인다. 이는 중국 국민성에 대한 장지락의 예리한 통찰력과 연관된 것으로서 그는 현실 회피와 사회적 사명에 대한 외면, 행동력의 부족 등을 중국 국민성의 문제점으로 파악한 것이다. 『아리랑』에서도 장지락은 조선인과 비교되는 중국 국민성에 대한 비판을 자주 드러낸다. 그는 “나는 중국인의 성격을 알고 있었으며, 보수를 받지 않는 한 어려운 일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²⁸⁾ “중국인이란 혁명가를 바보 아니면 돈을 가져다주는 대리인쯤으로 여길 것이다.”²⁹⁾ 등으로 중국인들의 사회적 무관심과 사명감의 결여를 꼬집는다.

중국에서는 아무도 출소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귀찮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본인 자신의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 뿐, 아무도 그 불행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는 혁명가가 되는 데 큰 용기가 필요하다.³⁰⁾

28) 님 웨일즈·김산, 송영인 역, 『아리랑』, 동녘, 2005, 351쪽.

29) 위의 책, 365쪽.

30) 위의 책, 376쪽.

이처럼 장지락은 개인적 이익만을 중시하며 사회적 현실에 무관심한 중국인들의 국민성을 안타까워하였다. 이는 일찍부터 맹렬히 자국 국민성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보였던 루쉰(魯迅) 문학의 영향과도 관계될 것이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장지락의 민감성과도 관련될 것이다. 또한, 반제국주의와 반(反)봉건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던 중국의 현실적 상황이 장지락으로 하여 중국의 경우 오로지 개개인이 진부한 전통적 관습과 인식에서 벗어날 때만이 혁명이 가능하다고 판단케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필」에서 장지락은 인류의 삶에 있어서 진리야말로 최고의 원칙이라고 보면서 과학과 철학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논의하였다. 그는 과학과 철학이 문제의 두 측면, 즉 어떻게 하는지와 왜 하는지를 각기 탐구하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또한 인류 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이상성에 이르지 못한 현대 사회의 혼란한 현실을 개탄한다. 특히 서양 문명이 동양 문명을 파괴하고,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인 농촌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시인 타고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장지락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비판하면서 예술은 단지 예술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위낙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 다투는 모습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부족하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불상에 바칠 향과 폭죽을 살 돈만은 꼭 마련하는 모습을 꼬집기도 한다. 이 글은 ‘진리’와 인간의 평등, 동서양 문명의 관계, 예술의 사명, 인간의 비루함 등 여러 가지 단상(斷想)들을 적고 있어 논리적인 맥락을 살피기는 힘들다. 중국인들의 일상화된 종교적 관습에 대한 비판을 인간 평등 문제나 예술의 사회적 기능 등 사변적 문제와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신아연」은 「잡담」에서 제기한 문예관을 한층 깊이 있게 탐구하는 동시에, 「수필」에서 언급된 인류 사회의 혼란과 종교에 대한 맹신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글은 서두에서 먼저 예술과 자연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외

국에서는 “예술가는 자연의 손자가 아니라 자연의 아들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예술가는 자연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음을 소개한다. 그는 예술가들에게 과연 “자연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아버지가 되는 게 옳은가?”라고 묻는다. 이러한 논의는 서양에서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모방론을 견준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 것이며, 자연은 또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를 장지락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술은 자연의 손자’라는 통속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장지락은 예술가의 독립성을 높이 사면서 예술가는 창조적 주체로서 자연을 초월하여 재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장지락은 문예가는 자유로운 새처럼 집 주변을 날아다니며, 집의 기초가 견고한지, 집 안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이는 문예가가 사회적 책임감을 지니고 사회 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문제를 드러내어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는 문예가로서 평화 시기에는 조화롭고 섬세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복돋아야 하나, 사회가 암흑기에 처할 때는 사람들을 각성시켜 혁명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이상적인 사회와 현실 사회를 비교하면서 이상적인 사회는 ‘사랑의 나라’로서 “무진역(畛域), 무고하(高下), 무귀악(鬼惡), 무친소(親疏), 무지우(知愚)”라고 주장한다. 한편, 그는 셰익스피어의 “가장 잔인한 짐승조차 인간보다 더 친절하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무지함은 후천적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종교란 사람들을 미신에 빠지게 하여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자율성을 약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린다고 비판의 화살을 겨눈다. 유교에 대해서도 자가당착적인 윤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인간 정신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힌다. 이 글 역시 여러 가지 단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논리적 맥락보다는 장지락이 문예의 역할, 인간 사회의 모순, 종교 등을 화두로 사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기 글들에서 종교에 대한 장지락의 비판은, 중국의 현실에 맞추어 불교나 유교의 기만성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가 종교 비판에 적극적이었던 이유

는 소년기 경험과 어느 정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어머니와 큰형수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빠지지 않았으며 크고 작건 일에 봉착할 때마다 기도에 의지했다고 한다.³¹⁾ 그 자신도 조선에서 교회 학교를 나왔기에, 장지락에게 종교는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이론적 화두였다.

3·1운동 이전까지는 나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녔다. 비록 기도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교회가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기구라는 것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파멸을 본 이후에는 내 믿음이 깨어져 버렸다. 나는 신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내가 태어난 투쟁의 세계에는 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세계대전 때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서로 살상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 것이다. 단지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일이다.³²⁾

이처럼 종교가 제시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큰 괴리를 깨달은 장지락은 광저우(廣州) 봉기와 하이루핑(海陸豐) 근거지를 경험하면서 “이것은 오직 인간적인 복수일 뿐이었다. 패자는 죽어야만 하고 승자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학살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수세대에 걸쳐서 살육을 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그들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울 뿐이다.”³³⁾라며 혁명의 잔혹함을 견디는 자기만의 철학을 갖게 되었다. 소설 「기묘한 무기」에서도 “현재의 세계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세계이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세계이다.”³⁴⁾라면서 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을 긍정한다. 나중의 일이지만, 1932년 장지락은 바오딩(保定) 제2사범학원에서 교사로 있을 때 반종교동맹에 가입하였고 『페이어바흐, 마르크스, 레닌의 인생관』이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 책의 「역자 서언」에서 그는 “반종교 투쟁의 주요 목적은 노동자와 농민, 소시민 대중이 종교의 환상과 기만에서 벗어나 계

31) 위의 책, 74쪽.

32) 위의 책, 98쪽.

33) 위의 책, 267쪽.

34) 炎光, 「奇怪的武器」, 『新東方』 제1권 제4호, 1930.4.1, 177쪽.

급투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³⁵⁾임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 장지락은 종교가 제시하는 이상이 현실 혁명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상을 유지하는 지배계급의 통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과정을 수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지락이 종교의 위해성과 문예의 사회적 기능을 항상 함께 논의하고 있음은 그가 문예야말로 대중이 종교적 미망에서 벗어나 각성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중국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 문예와 종교를 논의하면서 늘 중국 국민성과 관습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앞세운다.

5. 실존적 고독과 자의식

이상의 작품들이 혁명가 장지락의 사회 비판의식과 혁명 의지를 드러냈다면, 1930년 1월에 발표한 잡문 「삶의 잠꼬대」와 1930년 10~12월에 발표한 「통음」, 「고요한 밤」, 「외기러기」, 「하늘의 품속에서 자고 싶어라」 네 수의 시는 실존적 개인으로서의 고독한 심경과 자의식을 드러낸다.

「삶의 잠꼬대」는 생명과 인간 존재에 대한 장지락의 깊은 고민이 담긴 글이다. 사변적이며 언어의 상징성이 두드러진 이 작품은 서두에서 ‘인간’과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가장 신비롭고 기이한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어서 “생명의 그림자에다가 가고, 무덤에 가까워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나를 물샷틈없이 에워싸 도망갈 수 없게 한다.”라며 실존적 곤혹을 드러낸다. 여기서 화살은 늘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망명자로서의 신변 위협과 불확실성을 상징한다. 그는 다른 사람의 조롱과 비난을 견디기보다 자살을 선택하는 모험가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나는 죽음을 각오한 모험가의 신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눈

35) 張北星, 「譯者序言」, 佐野學 著, 張北星 譯, 『費爾巴哈, 馬克思, 列寧底人生觀』, 北京: 昆崙書店, 1932, 7쪽.

을 부릅뜨고 세상에 속아 넘어가겠다.”라면서 정면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다. 요컨대 그는 망국민으로서의 수치심을 견디어 내고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바, 이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전제로 하는 자의식이자,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주체적 인식이기도 하다. 그는 인간은 사물에 대한 인식, 분석, 그리고 판단을 통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고 믿었으며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존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자아’를 지키기 위한 그의 ‘이론’적 노력으로 보인다. 이어서 그는 “해가 서쪽으로 지고,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올 때, 나는 마치 끝없는 사막 속을 떠도는 고독하고 방향 잃은 존재처럼 느껴진다. 삶에서 도망치려는 순간에도 죽음은 어김없이 나를 쫓아오곤 한다.”라며 죽음과 삶을 화두로 한 고뇌와 방황을 솔직히 드러낸다. 또한, 장지락은 인간은 감각이 있는 예술적인 존재로서 모든 물질계를 초월하여 우주의 바퀴를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도 이 우주의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일꾼이 되어 동료들과 힘을 모아 한 번 힘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 힘이 얼마나 큰지 확신할 수 없고, 이 우주의 톱니바퀴에 부딪혀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며, 이 톱니바퀴를 어디까지 돌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결국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글귀에서 보다시피 그는 다시금 혁명 의지를 굳히고 있다. 장지락의 자서전에서도 흔히 보이다시피, 혁명의 의지에 앞서 늘 인간적 고뇌가 선행함은 근대적 개인으로서 장지락의 자의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시 시「통음」의 전문을 보도록 한다.

혼자서라도 술잔을 기울이자.

그것이 피든, 눈물이든

아니면 샴페인이든 상관없노라.

피라면

나는 그것이 어둠의 장막을 뚫고

광명(光明)을 청하여 이 자리에 합석케 하길 원하노라.

눈물이라면

나는 그것이 단비로 화해

온 세상의 풀과 나무를 적시기를 원하노라.

만약 그것이 단지 샴페인일 뿐이라면

나는 취중에

삶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하노라.

1930년 쌍십절(雙十節) 사흘 뒤, 가난과 병이 겹친 시기에.

보다시피 시「통음」은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인의 내면적 다중성을 드러낸다. 피와 ‘광명’에 대한 초대는 혁명가로서의 정체성을, 눈물과 단비에 대한 연상은 휴머니즘을, 샴페인과 안식처에 대한 소망은 위로를 얻고자 하는 실존적 개인의 감회를 보여준다. 낙관에서 보다시피 이시는 장지락이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던 중 술회한 것으로서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예민한 감수성을 보다 선명히 드러낸다.

나는 워낙 그대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

그대를 떠나면, 모든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러나, 나쁜 악마는

나를 떠나도록 꾀박하고, 나는 어쩔 도리가 없었네.

안타깝게도 나는 나약한 소졸일 뿐

악마를 이길 수 없어 쫓겨나야만 했네.

그래서, 그대를 떠났지.

비록 지금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그대에게 가 있네.

[.....]

외로운 등불과 잔영(殘影)의 흔들림이여

눈물방울이 옷을 조금씩 적시고

마음의 곳곳에 폭약 같은 것이 끓어오르네.

내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건강하신지요?

- 「고요한 밤」 부분

조국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은유한 「고요한 밤」에서는 고독과 상실감,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애절한 그리움을 읽을 수 있다. 마지막 연과 중복되는 도입부에서 ‘외로운 등불과 잔영의 흔들림이여’는 단순히 밤의 정서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조국을 잃고 해외에서 떠도는 시적 화자의 고독한 심경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어서 눈물이 옷을 적신다는 표현은 그 슬픔이 얼마나 깊고 절절한지를 전달한다. 이어서 시적 화자는 그녀와의 이별의 애절한 장면을 회상하면서 비록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면서 ‘악마’에 비유되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암시한다. 그리고 “비록 지금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그대에게 가 있네.”라는 시구를 통해서 조국애와 더불어, 망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몸과 마음의 괴리를 드러낸다.

시 「외기러기」는 “흰 구름 아득하고, 강물은 유유히 흐른다”로 시작하여 외기러기의 고독한 여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이어서 “하늘은 왜 이리도 높은가, 땅은 왜 이리도 넓은가?”와 “사방을 찾아봐도 함께할 동반자를 찾을 수 없고, 어디에 터전을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통해 함께할 동지를 찾지 못해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시적 화자의 고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몇 번이고 목숨을 다해/허공에서 긴소리를 뿜고 싶었어라./만약 이 황량하고 아득한 지구를 뒤엎을 수만 있다면/어찌 되든 나는 원망치 않으리.”라는 구절은 시적 화자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혁명적 열망과 그 열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좌절감을 드러낸다. 이어서 오펜로 가득 찬 황폐한 사막의 이미지를 통해 외기러기가 지향하는 ‘먼 곳’ 즉 이상적 사회와 비교되는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찬 부정적 현실과 그에 대한 환멸을 강조한다. 시의 마지막 연에서 장지락은 다시 한번 “흰 구름 아득하고, 강물은 유유한데/하늘은 왜 이리도 높은가, 땅은 왜 이리도 넓은가?/동서남북 상중하를 모두 바라봐도/광풍이 지난 자리에는 또 쓸쓸한 비만 내릴 뿐.”이라는 시구를 반복한다. 이처럼 시는 기후조인 기러기를 통해 ‘먼 곳’에 대한 지향을 내재하는 동시에 그와 대조되는 불완전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개체의 근대적 미망을 솔직히 드러낸다.

하늘의 품속에서 자고 싶어라!

지구를 요람 삼고

소나무 언덕을 베개 삼아

일월을 등불 삼고

채색 구름을 비단 이불 삼아

나는 하늘의 품속에서 자고 싶어라!

- 「하늘의 품속에서 자고 싶어라」 전문

시 「하늘의 품속에서 자고 싶어라」는 자연의 품속에 안겨 고단함과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시적 자아의 소망을 그리고 있다. 이 시에서 장지락은 지구를 요람으로, 산언덕을 베개로, 일월을 등불로, 구름을 이불로 삼겠다는 낭만성과 호방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한편, 소나무 언덕이라는 이미지가 견고함을, 해와 달이 어둠을 몰아내는 광명을, 채색 구름이 낭만과 평화로운 휴식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이 시는 앞서 침통하고 절망적인 정감을 읊은 시들에 비해 기조가 밝고 희망적이다.

요컨대 장지락의 시작품은 대부분 서정적 자아의 진실한 모습, 즉 개체로서의 내면성과 정서를 강하게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정감에 대한 해소가 고요한 밤, 기러기, 술, 자연 산천 등 상당히 전통적인 이미지에 기탁되어 있음

은 주목을 요한다. 의과대학을 나오고 중국 혁명에 개입하는 등, 극히 근대적인 주체였던 장지락의 상상력이 근대성과 사회 현실을 떠나 먼 곳과 자연에 머무를 때 비로소 위로와 평화로움을 얻고 있음은 무척 흥미롭다.

5. 결론

1937년 옌안(延安)의 루쉰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영서를 빌린 장지락은 님 웨일즈의 주목을 받게 되며, 이는 그의 구술 자서전인 『아리랑』을 탄생케 한 계기가 된다. 김산의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내적 외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념적 경계에 구속되지 않는 근대적 주체로 단련하는 동력이 된 것이다.³⁶⁾ 장지락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문학으로 눈을 돌렸으며 위험하고 고단한 지하당 시기에 중국어 창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학이 그에게 위로와 힘의 원천이었음을 말해준다.

주제적 측면에서 그의 문학 작품의 주요한 특징을 정리한다면 첫째, 그의 많은 작품은 중국을 무대로 전개되었다. 첫 소설 「가난한 학생들의 경제 정책」은 중국에서의 고학 생활 경험에 근거한 유머러스한 작품이며, 잡문「잡담」이나 「신아연」 등은 모두 중국 전통 문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문학을 비판하는 등 중국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기묘한 무기」 역시 중국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희곡 「혁명 동맹」의 경우에도 중국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이처럼 장지락의 작품은 중국이라는 현장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한국인의 중국어 저술과는 변별된다.

둘째, 글의 주제와 관점에 있어서 계급혁명 사상과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영향이 뚜렷하였다. 억압받는 민족과 계급의 국제적 연합, 사회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지속적인 혁명에 대한 열망, 문예의 사회적 사명과 중

36) 양진오, 「김산의 『아리랑』은 어떻게 책이 되었나?」, 『국어교육연구』 69, 국어교육학회, 2019, 294쪽.

교에 대한 비판 등에서 모두 선명한 계급적 경향을 드러낸다.

셋째, 잡문 「삶의 잠꼬대」나 다수의 시작에서 보다시피 그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내면을 가진 근대인이었다. 그는 사회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유혈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철저한 혁명가적 면모는 물론, 하층민에 대한 깊은 연민을 품고 인간의 잔인함 때문에 늘 고민하는 휴머니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그는 망국민과 망명자로서의 수치와 외로움을 감추지 않았으며, 방황하는 실존적 개인으로서의 고뇌를 솔직히 드러내었다.

넷째, 그의 작품은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징, 비유, 풍자와 해학 등 기법적 측면에서도 능란함을 보인다. 비록 희곡 「혁명 동맹」과 같은 경우 서사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일부 잡문도 단상(斷想)에 가깝지만, 한인으로서의 중국인들과 비견되는 훌륭한 문필 실력을 갖추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 현대문학을 풍요롭게 하였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동아일보』

『大公報』, 『三民半月刊』, 『新東方』

김산, 서은혜 역, 『『아리랑』의 주인공이 직접 쓴 기묘한 무기』, 『다리』 1, 1990.

님 웨일즈 · 김산, 송영인 역, 『아리랑』, 동녘, 2005.

Nym Wales, Kim San, *Song of Ariran: The Life Story of a Korea Rebel*, New York: John Day, 1941.

2. 논문 및 저서

미즈노 나오키, 편집부 역, 『김산의 작품과 생애 - 조선의 해방을 향한 정열』, 『다리』 1, 1990.

박재우 · 김영명, 「金山의 작품과 그 사상의식 변주 고찰」, 『중국문학』 78, 한국중국어문학회, 2014.

손만녕 · 최창록, 「장지락의 중국어 창작과 북방 좌익문화운동(1929-1930)」, 『상허학보』 69, 상허학회, 2023.

양진오, 「김산의 『아리랑』은 어떻게 책이 되었나?」, 『국어교육연구』 69, 국어교육학회, 2019.

최용수, 「김산(장지락) 연보」, 『황해문화』 49, 새얼문화재단, 2005.

『瞿秋白』, 西北師範學院政治系中共黨史教研室 · 資料室, 『中國共產黨英烈小傳 第1集』,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1980.

『大公報』, 唐力行 編, 『江南文化百科全書』, 上海: 光啓書局, 2021

『方聞』, 侯文正 主編, 『五臺山志』,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2003.

郭帥, 「20世紀30年代國民黨省級黨部宣傳部文藝審查基本制度-以南京特別市黨部宣傳部爲案例」, 李怡 · 毛迅 主編, 『現代中國文化與文學 32』, 成都: 巴蜀書社, 2020.

郭聰 · 李楠, 「家國情懷與人類關懷的統一: 李大釗民族主義與國際主義思想的歷史考察」, 『社會科學動態』 7, 湖北省社會科學院, 2024.

沈文冲, 「北平新亞洲書局刊行的『新東方』」, 『民國書刊鑒藏錄』,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2007.

王慶全, 「左翼知識分子立場與『革命文學』論爭研究」,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王永志, 「列寧的新經濟政策再思考」, 『學習與探索』 6, 黑龍江省社會科學院, 2002.

周雲 · 王稼裕, 「中共三大與海陸豐農民運動」, 『江蘇第二師範學院學報』 40(1), 江蘇第二師範學院, 2024.

廚川白川, 魯迅 역, 『出了象牙之塔』, 北京: 未名社, 1925.12.

廚川白川, 錄蕉 · 大杰 역, 『走向十字街頭』, 上海: 啓智書局, 1928.8.

Thematic Study of Jang Jirak's Literary Creations during the Beiping Underground Party Period (1929-1930)

Sun, Man-ning* · Choe, Chang-ruk**

This paper is a thematic study centering on the literary creations like novels, plays, poems, and essays within the Chinese-language works released by Jang Jirak (1905-1938) during 1929-1930, when he was engaged in the underground work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Beiping. Under the pseudonyms “Yan Guang” and “Li Yanguang”, these works were published in well-known modern Chinese media such as Ta Kung Pao, Xin Dong Fang, and San Min Ban Monthly. Firstly, these writings emphasized resistance against imperialism and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of small and weak ethnic groups. Secondly, while depicting the hardships of the lower-class people, they pointed out the incompleteness of the Chinese revolution and stressed the necessity of continuous revolution. Thirdly, through anecdote-style essays, they criticized the lack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hinese national character that only prioritized personal interests, traditional customs, and the harm of religion, and simultaneously reflected on the social function of literature and art. Fourthly, through some essays and initial works, they revealed the loneliness, hopelessness, and self-awareness of a stateless person and an existential individual. The literary creations of Jang Jirak during this period are of great significance. They not

* First Author, Ph.D. Candidate (Completed Coursewor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Nanji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Nanjing University

only show the intertextuality with his autobiography “*Song of Ariran*” and the Chinese reality of that era but also display his various aspects and inner self as a professional revolutionary, a humanist, and an existential individual.

Key words : Jang Jirak, Kim San, Yan Guang, Chinese-language works, thematic study